주인공 이름

형사->알릭(Alik)

저항세력 요원-> 셀마(Selma)

소녀-> 에일린 (Eileen)(줄여서 Key 라 불림)

연구원->한스(Hans)

오버시어

왓쳐의 요원->로보(Lobo)

주요장면

**사고(9월 13일)**

♬

‘이번 정류장은 ○○ 입니다..’

버스가 멈추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. 한스는 버스에 타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으로 눈을 옮긴다.

한스 : “…”

한스는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.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는다.

시간이 멈췄다. 왓쳐가 그를 발견했다는 말이리라.

한 중무장한 남성이 버스에 탄다. 그 뒤에는 같이 무장한 경호원 둘이 따라왔다.

???(왓쳐의 행동대장 로보) : “오랜만이야, 한스”

한스 : “… 로보”

한스는 그를 노려보았다.

로보 : “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, 너무 인상 찌푸리지 말…”

한스 : “열쇠를 찾은 건가?”

로보 : “너를 찾았지. 물론 그 쪽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지만 말이야.”

한스 : “그럼 위치를 물어보러 오셨나? 나에겐 무슨 짓을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텐데?”

로보 : “하하하! 그건 알고 있어. 그저 반가운 얼굴도 보고… 후환도 없앨 겸 왔지.”

한스 : “… !”

로보 : “너는 우리의 계획에 너무 많은 피해를 줬어. 오버시어께선 널 아꼈지만 넌 그 분을 배신했다.”

한스 : “…그는 미쳤어”

로보의 표정이 굳더니 한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긴다.

로보 : “그 분을 욕하지 마라.”

로보 : (잠시 숨을 고른다)”뭐 어쨌든… 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어. 하지만 널 직접 죽이지는 않을거야.”

로보가 버스의 입구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.

로보 : “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죽는 거다, 한스…”

로보 : “놈의 시간 장치를 무력화시켜라”

로보의 경호원 둘이 한스를 붙잡고 전기충격기를 닮은 장치를 댄다. 한스는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버스는 움직이고 있었다.

잠시 후 덤프트럭이 버스를 덮쳤다.

**증상(9월 15일)**

♬

??? : “아빠, 엄마가 빨리 일어나래.”

알릭 : “으음...”

알릭은 잠시 몸을 뒤척이다가 놀란 듯 일어난다.

알릭 : “안나?”

방에는 그 혼자 뿐이었다. 그는 슬픈 표정을 짓는다.

알릭 : “…그럴리가 없지.”

TV에서는 몇 일전 버스와 덤프트럭 간의 추돌사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. 버스의 승객들은 모두 사망했지만 덤프트럭의 운전수는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다.

부엌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. 알릭은 전화를 받는다.

알릭 : “거스?”

거스 : “좋은 아침이야 알릭! 오늘 잠자리는 좀 편했나?”

알릭 : “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?”

거스 : “헤헤 역시 쌀쌀맞은 반응이군. 버스 사건 때문에 연락했어. 그 덤프트럭이 ○○운송회사 소속이더군. 수사를 위해 가야하는데 서까지 가지 말고 거기서 만나자.”

알릭 : “나 차 수리 맡긴 건 알고 있는 거지?”

거스 : “사고 났던 버스가 너네 집 근처로 다니는 거더군. 그 버스를 타면 운송회사 앞으로 갈 수 있어.”

거스 : “돌아갈 때는 내가 태워줄 테니 일단 빨리 나와!”

알릭 : “… 알았다.”

알릭은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선다.

**교차(9월 ?일)**

♬

??? : “오늘은 빨리 들어올거죠?”

알릭 : “어..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은데,, 노력해볼게.”

알릭 : “노력해 볼… 노ㄹ..”

알릭 : “…. ?!”

알릭은 버스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. 그는 전화를 귀에 대고 있는 상태였다. 하지만 어느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다.

알릭 : “…? 오늘따라 몸이 이상하군.”

그는 뭔가 온 것이 있는지 폰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. 핸드폰의 날짜가 9월 13일을 가리키고 있다.

알릭 : “오류인가?”

그는 인터넷으로 현재 시간을 검색한다. 하지만 역시 9월 13일인 것을 발견한다.

알릭 : “이건 대체…”

알릭 : “오 세상에.”

(버스를 멈춰라)

**납치**

♬

(알릭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버스를 멈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트럭과 부딪힌다.)

쿵-

알릭 : “으헉!”

버스 안이다. 그는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앉아있다.

알릭 : “…?”

알릭은 다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본다. 9월 15일이다.

알릭 : “꿈… 이었다고?”

“이번 정류장은 ○○운송사 입니다.”

알릭은 서둘러 버스에서 내린다.

알릭 : “아무래도 오늘은 휴가를 내야겠는걸…”

그는 갑자기 뒤통수에 큰 충격을 느끼고 쓰러진다.

로보 : “같이 가 주셔야 겠어 형씨”.

알릭은 검은 마티즈에 태워져 납치당한다.

**구출**

♬

**열쇠**

♬

연구원이 열쇠와 함께 살던 은신처는 수많은 저층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었다. 건물들이 이루는 골목들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고, 너저분한 길들은 이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설명하고 있었다.

기동대원 : “녀석을 잡아!”

바로 위에서 한 소녀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 넘어간다. 알릭은 주변의 모습이 순간 순간 변하는 것을 본다. 소녀가 도망치면서 시간을 바꾸고 있다.

(대부분 일반적인 시간 능력자들은 자기 자신을 시간의 한 순간으로 옮길 수 있다. 에일린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의 시간 자체를 돌린다. 시간 능력자들은 주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계속 같은 곳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때는 다른 시간대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.)

셀마 : “쫓아가야 해요.”

알릭과 셀마는 기동대원을 처치하며 아이를 쫓아간다.

….

에일린 : “더 이상 움직이지마!”

소녀를 쫓아 골목으로 들어갔다. 알릭과 셀마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. 그곳은 다른 시간대에 큰 트럭이 존재한다. 에일린이 시간을 조작하면 둘 다 트럭에 끼여 죽으리라.

알릭 : “워! 진정해. 우린 널 구하러 온 거야!”

에일린 : “그걸 어떻게 믿지?”

셀마 : “한스. 한스는 우리의 동료야. 그가 너를 부탁했어.”

에일린 : “부탁.. 했다고? 그게 무슨 소리야. 한스는 어디 있어!”

셀마 : “그게…”

….

셀마 : “왓쳐에게 살해당했어.”

**불꽃축제**

♬Magdalene Flowers - A Perfect Night to Lose Our Way

에일린이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불꽃축제를 본다.

폭죽이 터지는 모습에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인다.

지금까지 이토록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.

그녀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.

알릭 : “너 …?”

알릭은 말을 멈춘다.

어린 나이에 당했던 실험이라는 명목의 학대들, 하고싶은 것을 금지 당하며 살았던 생활들…

그렇게 쌓였던

에일린 : “아니.. 그냥...”

**엔딩- 현재가 되어버린 과거에서**

♬Solace - The Self Variety (Loathing)